

지리산길에서는

- 지리산길 주변의 농작물과 열매는 마을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손대지 말아 주세요.
- 지리산길 도보여행에 어울리는 대중교통 이용과 5인 이내의 이동을 권합니다.
- 지리산길을 허락해 주신 마을 주민에게 먼저 인사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세요.
- 지리산길은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를 잇고 보듬는 길입니다. 시간당 2.5Km의 느린 걸음이 어울립니다.



운봉~주천구간 버스시간표

	남원 - 운봉	운봉 - 남원
첫차	06:02	06:53
막차	20:52	21:45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운봉우체국 앞
약 10~20분 간격 배차, 40여분 소요

	남원 - 운봉 - 인월	인월 - 운봉 - 남원
첫차	06:02	06:40
막차	20:52	21:35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인월 버스터미널
약 40분 간격 배차, 50여분 소요

	남원 - 주천(육모정 행)	주천 - 남원
첫차	06:15	06:37
막차	20:25	20:48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장안슈퍼 앞
약 60분 간격 배차, 35여분 소요

* 버스 시간표는 차고지 출발시간 기준으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남원 시내버스 063-631-3116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063-633-1001 / 남원 고속버스터미널 063-625-5391

교통안내

남원시 <http://tour.namwon.go.kr>

함양군 <http://tour.hygn.go.kr>

산청군 <http://tour.sancheong.n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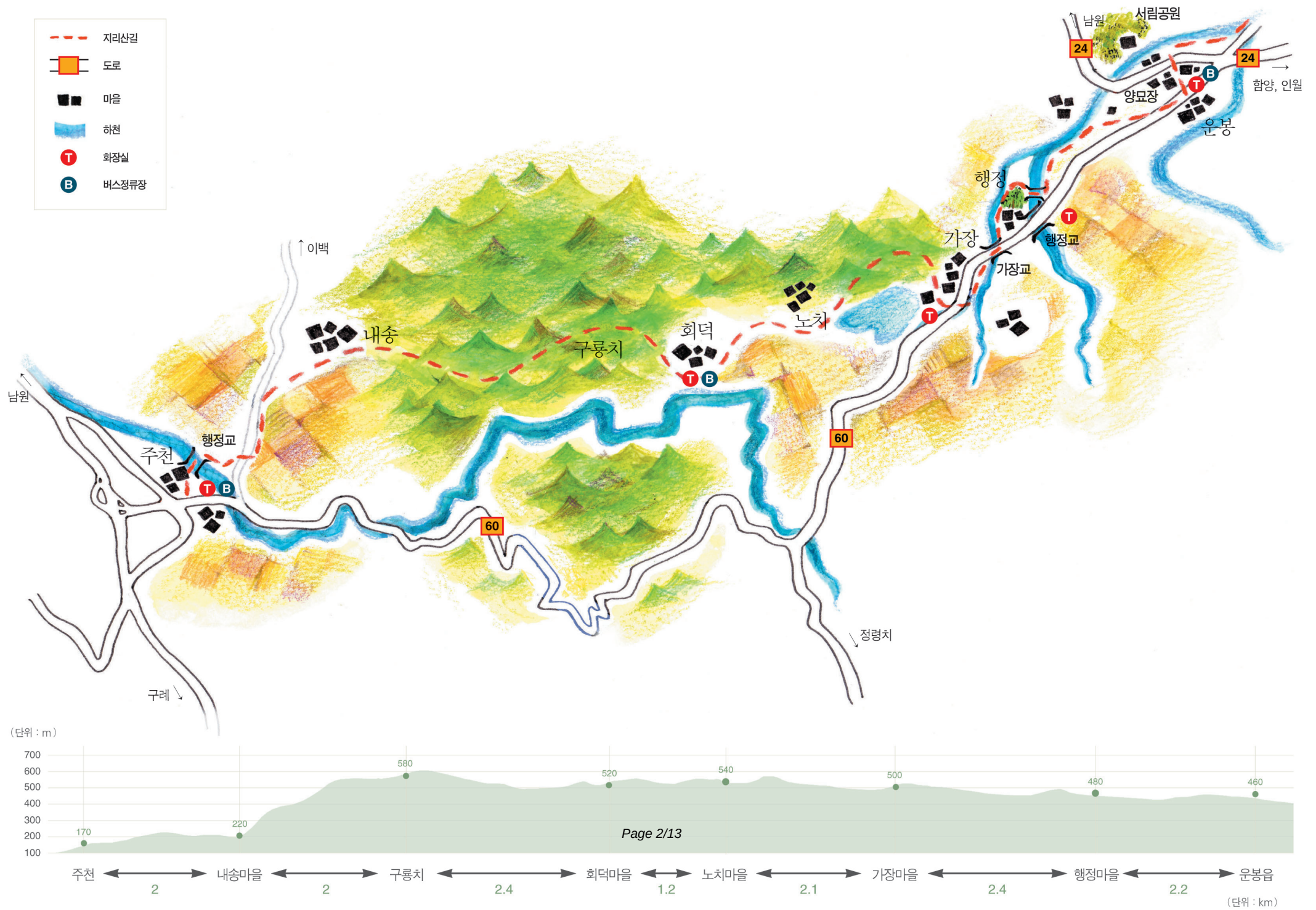
지리산길

JIRISAN TRAIL

운봉 ~ 주천 구간
(14.3Km)



길은 삶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지리산길은 소통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정보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외평마을과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를 잇는 14km의 지리산길. 본 구간은 지리산 서북 능선을 조망하면서, 해발 500m의 운봉고원의 너른 들과 6개의 마을을 잇는 옛길과 제방길로 구성된다. 구간별 주요 지명 : 운봉읍 - 옛 양묘장 - 행정마을 - 서어나무숲 - 가장마을 - 질미재 - 덕산저수지 - 노치마을 - 회덕마을 - 구룡치 - 솔정자 - 내송마을 - 주천면 운봉 - 주천구간은 옛 운봉현과 남원부를 잇던 옛길이 지금도 잘 남아있는 구간이다. 특히 10km의 옛길 중 구룡치와 솔정자를 잇는 회덕~내송까지의 옛길(4.2km)은 길폭도 넉넉하고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경사도가 완만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숲길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다.

'주천 - 운봉' 구간별 안내



NO IMAGE

노치마을

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연락처 : 노치마을 오영록 011 - 9474 - 6676

노치구관장 : 063 - 626 - 0838



NO IMAGE

가장마을

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연락처 : 가장마을 소순모 011 - 656 - 0993 (회관사용만 가능합니다.)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들러 가는



외평마을

약 600여 년 전 10여 호의 마을을 이루었으나 농업용수가 마땅치 않았으나, 용궁마을에 장안저수지를 만들면서 식수 및 농업용수가 해결되어 마을이 번성하 시작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숙성치를 넘어 구례군 산동면(당시는 남원부) 원달리로 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음양에서 말을 갈아타고 농협 창고 뒤편에서 쉬어가는 곳이어서 라 하였는데, 경치가 수려하여 감탄을 자아낸 곳이라 전한다.



내송마을(안솔치)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한양 조(趙)씨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그 후로 경주 김(金)씨, 서산 류(柳)씨 등 여러 성씨들이 차례로 들어와 30여 호 마을을 이루면서 주위의 비옥한 농토와 산림을 토대로 부유한 마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곳 출신 조경남(趙慶南)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개미정지

내송리 서어나무 숲



솔정자

솔정자는 20여년 전만 해도 나무하러 지계를 지고 가다가 고개를 오르기 전에 땀을 식히고 주천 들녘과 멀리 숙성치와 밤재를 바라보던 아름답리 소나무가 있던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정유재란 당시 숙성치를 넘어 남원성을 향하는 왜군을 향해 조경남 장군이 활시위를 당겼던 곳이라고도 한다. (솔정자를 마을 분들은 ‘솔정지’ 라고 한다.)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구룡치

구룡치는 주천면의 여러 마을과 멀리 달궁마을에서 남원 장을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 달궁마을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남원 장에 가려면 2박 3일에 걸쳐 다녀와야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구룡치를 장길로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백중 (음력 7월 15일) 이 지나고 마을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길을 보수해서 이용해 왔는데 지금도 예전의 보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용 소나무

소나무 한그루가 용틀임 하듯이 꼬여져 다른 소나무를 휘감는 보기드문 현상을 볼 수 있다.



사무락다무락

길을 걷다보면 돌들로 답을 쌓아놓은 ‘ 사무락다무락 ’ 을 만난다. 사무락다무락은 사망(事望)다무락(담벼락의 남원 말)이 운율에 맞춰 변천된 것으로 보이는데,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무사함을 빌고 액운을 막아 화를 없애고자 지날 때마다 돌을 쌓아 올렸다고 한다.



회덕심터

오래된 느티나무 한그루가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길을 걷는 중 쉬어가기 좋다.



회덕마을

임진왜란 때 밀양 박(朴)씨가 피난하여 살게된 것이 마을을 이룬 시초라고 한다. 원래는 마을 이름을 남원장을 보러 운봉에서 오는 길과 달궁쪽에서 오는 길이 모인다고 해서 “모데기”라 불렀다. 그 뜻은 풍수지리설에 의해 덕두산(德頭山), 덕산(德山), 덕음산(德陰山)의 덕을 한 곳에 모아 이 마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회덕마을은 평야보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짚을 이어 만든 지붕보다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만들었으며 현재도 두 가구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노치마을

조선초에 경주 정(鄭)씨가 머물러 살고 이어 경주 이(李)씨가 들어와 살게 되어 지금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노치마을은 해발 500m의 고랭지로서 서쪽에는 구룡폭포와 구룡치가 있으며 뒤에는 덕음산이 있고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말하는 고리봉과 만복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구룡치를 끼고 있다. 마을에서는 마을 이름을 “갈재”라고 부르는데 이는 산줄기의 높은 곳이 갈대로 덮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재는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노치마을은 고리봉에서 수정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위에 있어, 비가 내려 빗물이 왼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되고 오른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이 되는 마을이다.



덕산저수지

주천면부터 이곳까지는 20년 전까지 운봉, 산내 사람들이 남원장을 보러 다니던 옛길이다.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길



질매재



가장마을

풍수지리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가장리(佳粧里)라 불렀다 한다. 지금은 들녘에 농사짓는 움막터를 뜻하는 농막장(庄) 자를 써 가장리(佳庄里)로 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봉 아래에 옥녀가 베를 짜는 옥녀직금의 천하명당이 있다고 믿고 있다. 300여 년 전 이곳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동복 오(吳)씨와 강릉 유(劉)씨라고 하며 그 후 창녕 조씨와 김씨, 박씨 등이 입주하게 되었다. 마을이 뱀 형국으로 마을 앞에 입석을 세워 뱀의 기를 눌러 마을의 액 막음을 하고 있다.



버스타는곳

운봉읍과 운봉읍을 거쳐 남원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서어나무숲

행정마을에 있는 서어나무 숲은 ‘ 제1회 아름다운 숲 ’ 대상을 받은 곳으로, 수백년된 서어나무들이 아름드리 줄지어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곳이다.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길



버스타는 곳

운봉읍과 운봉읍을 거쳐 남원방면으로 갈 수 있다.



양묘사업장

제방길을 걷다보면 산림청의 옛 양묘장을 거쳐 예전의 영화에서나 볼법한 70년대식 건물이 늘어서 있는 운봉 읍내 거리를 만나게 된다.

'주천 - 운봉' 주변에 있는 지점



노치당산

노치마을에 위치한 백두대간 소나무 당산

엄계마을

조선조 숙종 초기(1674 ~ 1720) 영월 엄씨(寧越 嚴氏)가 처음 들어왔으며, 엄씨는 세상의 명예와 속세를 멀리하고 홀로 은거하며 마을 앞 시냇가에 낚시하는 것으로 소일(消日)하였다. 유래는 확실치 않지만 마을 최초 이름은 ‘영금’이었다. 그후 행정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엄씨 선비가 낚시하던 시냇가라는 의미로 엄할엄(嚴)자와 시내계(溪)자를 합해 마을 이름을 엄계(嚴溪)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모양이 거북이 같이 생겨 가지고 영금영금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기어간다고 해서 엄계라 했다고도 전해진다.

삼산마을

자세한 숙박문의는 마을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연락처 : 삼산마을 김종열 011 - 9629 - 1701



지리산 둘레 800리 길
곧장 오르지 않고
애둘러 가는
길

지리산길 안내센터

주소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98-1

전화 : 063 -635 - 0850

팩스 : 063 -636 - 1946



주의사항

- 지리산 IC 에서 승용차 이용시 3.5km, 5분 거리(손만두전빵 간판 옆 골목)
- 인월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오시는 분은 터미널 건너편 인월 한의원 사이 골목으로 200M 직진 후 좌회전 (도보 5분 거리)
- 안내센터에 오시면 지도와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승용차는 안내센터에 주차해 주세요 (주차는 무료), 마을에는 주차 하실 수 없습니다.

승용차

- 서울

경부(중부고속도로) - 대전 - 함양JC - 지리산IC - 배암등사거리 - 60번 지방도로 - 인월사거리 실상사 방향 직진 300m지점 도록 우측 - 지리산길 안내센터

- 대구

88올림픽고속도로(광주방향) - 함양JC - 지리산IC - 배암등사거리 - 60번 지방도로 - 인월사거리 실상사 방향 직진 300m지점 도로 우측 - 지리산길 안내센터

- 부산

남해고속도로 - 진주 - 대전통영간고속도로(3번국도) - 함양JC - 88올림픽고속도로(광주방향) - 배암등 사거리 - 60번 지방도로 - 인월사거리 실상사 방향 직진 300m 지점 도로 우측 - 지리산길 안내센터

- 강릉(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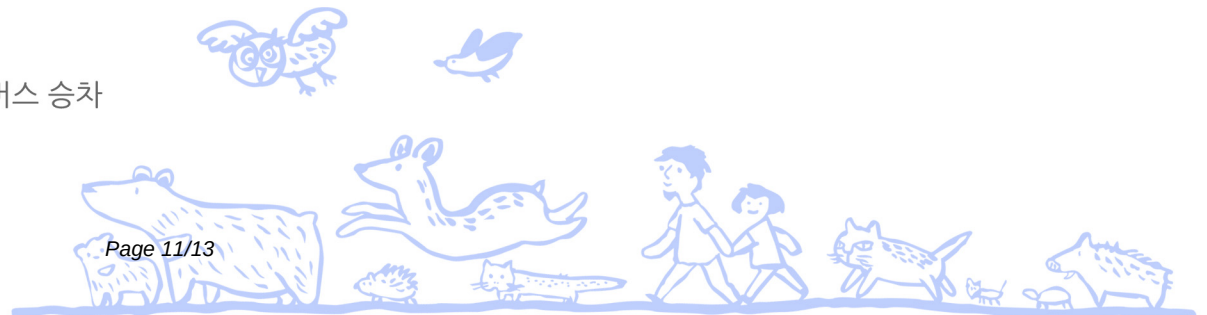
영동고속도로 - 호법JC - 중부고속도로 - 대전 - 함양JC - 88올림픽고속도로(광주방향) - 배암등사거리 - 60번 지방도로 - 인월사거리 실상사 방향 직진 300m지점 도로 우측 - 지리산 안내센터

버스

-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인월행 차표를 구입하셔서 '지리산 백무동'행 버스 승차, 인월터미널에서 하차하시면 가까운 곳에 지리산길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 서울 양재동 남부터미널에서 함양행 버스 승차(거창, 안의 경유), 함양에서 인월행 버스 승차, 인월터미널 하차
- 광주, 전주, 대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원, 인월행 버스타고 인월터미널 하차
- 부산(사상터미널), 대전동부터미널에서 함양행 버스 승차, 함양에서 인월행 버스로 갈아타고 인월터미널 하차

기차

- 남원역 하차/시내버스 또는 택시로 남원버스터미널 도착 인월가는 버스 승차





지리산길은 느리게 성찰하고 느끼며 에둘러 가는 수평의 길입니다. 길을 허락해주신 마을과 숲속 생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에 함께해주세요.

1.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합니다

지리산길 구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과 농로, 임도, 숲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걷는 구간과 숙박 등을 계획하시고, 편의시설을 만나기 힘드므로 도시락과 물, 간식 등을 꼭 준비해주시요. 휴지나 간식봉지, 음식쓰레기 등은 되가져갑니다. 생활길인 이곳은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터미널과 관공서, 숙소, 마을 안 개방 화장실 등을 만나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단체이용보다는 작은 모듬 여행을 권해드립니다

지리산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을 거쳐 갑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단체 여행은 그 자체로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 여행은 호젓함 속에 그 참맛이 있기에 가족, 친구 등 5명 이내의 인원이 함께 하면 좋습니다.

3. 농작물과 열매는 절대 손대지 말아주세요

농작물이나 열매는 지역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만 봐주세요. 호기심으로 농작물을 따거나 밭에 들어가 밟는 행위가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고 지리산길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해칠 수 있습니다.

4. 마을에서는 먼저 인사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허락을 받아주세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웃으며 인사를 해주세요. 또한 생활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사진 찍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줍니다.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꼭 허락을 받아주세요.

5.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고, 지리산길 안내센터를 들려주세요

대중교통 이용은 도보여행의 일부입니다. 자유로운 걷기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길안내센터에 들려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한결 더 풍성한 걷기여행을 준비해보세요.(화장실, 주차장 이용 가능)

6. 도보여행을 위한 길이니 다른 교통수단은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지리산길은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산악자전거(MTB)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 휠체어, 유모차 등은 고도변화가 심하고 길의 폭이 넓지 않은 구간이 많이 섞여있어 통행이 힘듭니다.

7.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것은 자제해주세요

지리산길은 지리산 자락의 마을을 지나는 구간이 많아 반려동물을 데려오시면 지역주민이나 이용자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위분이나 일정한 장소에 맡기고 출발하세요.

